

홍성·보령지역 민가의 배치 및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조선후기에 건축된 가옥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rrangement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Hongsung and Poryoung
- Focused on the houses built in late-Chosun -

오진안* 이강복**
Oh, Jinahn Lee, Kangbok

Abstract

This study lays emphasis on the traditional houses of Hongsung, Poryoung which were hardly studied.

The method of investigation is to grasp the type,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feature of the traditional houses through sample survey.

This study lays emphasis on two myon of Hongsung, Poryoung retaining their original form relatively through sample survey. The houses of investigation subject involve the houses in which structure change is not big of repair and improved houses centering around houses confirmed things built in late-Chosun.

The method of investigation is to consider survey, materials for research work, and literature and is to grasp the substance of houses through analysis of arrangement, plane, and structure.

1. 서론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시기부터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여 왔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문명·문화의 발달 등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여 왔다.

특히 충청지역의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통가옥의 고유형

태를 가지고 있는 가옥 역시 거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급속도로 개량·훼손되어가고 있다.

주거형태는 생활의 여러 측면에 부여된 상대적 중요성과 현실을 지각하는 가시적 표현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규범과 자연의 제약에 반응하면서 문화와 지역성에 의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한 지역의 인문사회도 변모한다. 즉 우리 나라가 고유로 갖고 있는 재래신앙, 풍속, 가족제도, 경제형태는 날로 변모하고 있다.

* 정희원, 동해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정희원,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표 1. 연구대상가옥 현황

지역	내용	위 치	가 옥 명	건 립 년 대	조사방법	비 고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노성모	1690년대 후반	실측	
			김우열	19세기중엽	실측, 문헌	충남민속자료10호
			전용일	조선 숙종조	문헌	충남민속자료11호
	갈산면 운곡리		성명미상	1917	실측	
			박차금	1890년대 후반	"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성명미상	19세기 후반	실측	
			신경섭	1843년	실측, 문헌	문화재 자료291호
	남포면 봉덕리		이창주	1890년경	실측	
			성명미상	19세기 후반	"	
			이현구	19세기 후반	"	문화재 자료288호

특히 농촌가족의 구조 변화로 인하여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파괴되고, 핵가족화, 인구의 감소현상과 생활상의 변모와 함께 주생활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 전통 주거에 대한 고유인식보다는 불편함을 느끼며 입식(서구형 주거)을 선호하고 있다¹⁾.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조선후기에 건축된 가옥중 홍성군과 보령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된 주거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본조사 결과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홍성군과 보령시의 3개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가옥은 조선후기의 것으로 확인된 주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후일 보수와 개량된 가옥 중에서도 구조 변경이 크지 않은 가옥을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통하여 실측과 기존의 연구사례, 기타의 문헌 등을 고찰하고 배치, 평면, 구조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물의 실체를 파악코자 하였다. 조사대상 가옥의 범위는 [표 1]과 같다.

1) 실제로 조사대상가옥의 거주자 대부분이 가장 불편함으로 부엌에서 난방과 취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개량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그것은 젊은 층에서 더욱 분명하다.

2. 조사대상지역의 살림집 현황

2.1 홍성군

1) 갈산면 상촌리

상촌리는 갈산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1구인 노동과 2구인 상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촌은 노동의 서남쪽에 있다. 마을 뒤편으로는 산신제를 지내는 조그마한 산이 자리하고 있다. 그 산 동쪽 끝에 갈산 중·고등학교가 있다. 마을 앞으로는 삼준산에서 흘러 내려와 내갈리 쌍천을 거쳐 이곳을 지나 행산리로 하여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큰 하천이 있다.

노동과는 달리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종교는 불교가 80%이고 기독교인은 일부에 불과하다.

마을의 동북쪽에 위치한 결봉산 자락과 서쪽에 위치한 삼불산 자락이 만나 마을 북편을 막아주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자락 사이로 운곡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마을 앞들에서 와룡천과 합수된다. 주산 격인 결봉산 자락이 마을의 동편에서 좌청룡을, 삼불산 자락이 서편에서 우백호를 만들고, 마을 앞으로 넓은 들이 있으며, 동에서 서로 와룡천이 흘러 지나가는 풍수적 국면을 가지고 있다.

사례 1. 노성모 가옥



사진 1. 노성모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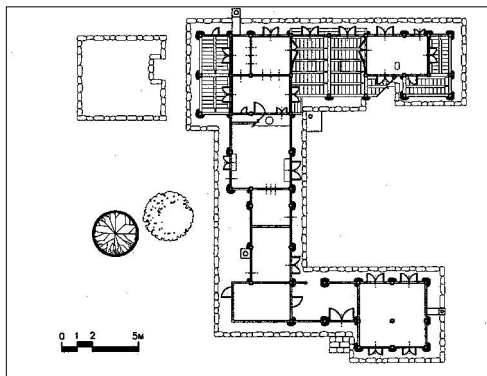


그림 1. 노성모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가옥 뒤의 야산을 배경으로 다소 높은 지역에 배치된 이 가옥은 정면으로 넓게 트인 넓은 들판을 향하여 멀리서 성주산을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다.

가옥의 배치는 ‘口’자형 배치였으나 행랑채였던 동쪽부분은 1975년경에 블록식 구조로 개축되었다.

호주의 고증에 의하면 건립년대는 1690년대경 이라고 하는데 이는 1980년 보수할 당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구조는 대청마루가 있는 몸채부분이 정면과 동서쪽에 퇴칸을 둔 1고주 5량이다. 몸채와 연결된 행랑채는 삼량구조이며 지붕은 팔작과 맞배지붕이 혼합되었다.

평면의 구성은 안채가 부엌, 안방, 옷방의 수

직축과 대청마루와 건넌방이 수평축을 이뤄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방과 옷방 서측에 툇마루를 두었으며, 옷방은 사잇장지로 구분한 고방이 있다. 2칸통의 대청마루는 후면의 창호가 널문이며 전면에는 창호를 두지 않았다. 건넌방은 전면과 우측에 툇마루를 두었으며, 대청마루보다 300mm높은 난간이 있는 툇마루가 있다. 이 툇마루 밑으로는 아궁이 함실이 있다. 우측 퇴칸은 다시 대청마루와 같은 높이이다.

행랑채는 부엌에서 안채보다 낮게 연결되었다. 이는 안채와 부속채가 연결되었지만 공간의 위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평면의 구성은 부엌에서 연결하여 광을 두었고, 2칸의 방, 그리고 대문간을 회침으로 하여 옆으로 방을 두었다.

기단은 높이 320mm의 막돌외벌대쌓기이다.

주초는 덩병주초에 기둥은 200×200mm의 방주이며 대청마루의 높이는 550mm이다. 몸채와 연결되어 있는 부속채는 부엌, 광, 방, 방, 대문, 방의 순서로 구성된 삼량구조이다.

부엌은 상부가 우물마루인 다락이 건넌방에서 출입토록 되어 있다. 광은 부엌에서도 출입이 가능한 미서기문으로 되어 있고 안마당 쪽으로 살창이 있다.

대문은 남쪽에 두어 동·서에 문간방을 두었는데, 동쪽의 방은 대문 밖으로 증축을 하여 넓혀서 사용하고 있다.

이 가옥은 ‘口’자형 배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안마당을 가지고 있는 가옥으로 블록구조의 건물만이 기존의 형태가 아닐 뿐, 비교적 그 초창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옥이다.

사례 2. 김우열가옥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가옥은 19세기 중엽에 건립되었으며, 중부형 민가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다.

안채는 부엌과 안방, 옷방의 수직축과, 2칸통의 대청마루와 건넌방의 수평축이 ‘ㄱ’자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 김우열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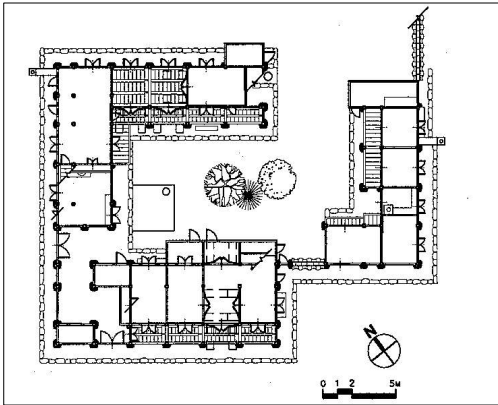


그림 2. 김우열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부엌으로 행랑채의 대문칸, 방이 연결되는데 대문칸 옆 1칸의 방을 제외하고 3칸의 방은 사잇장지문을 사분합문 들어열개로 하여 대소사의 행사에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안채와 행랑채 이어져 ‘ㄷ’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여기에 부속채가 튼 ‘口’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튼 ‘口’자형 고유의 안마당과 행랑채 앞의 독립된 바깥마당, 안채 뒤와 행랑채사이의 뒤안을 두었다. 배치 구성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출입에 다소 폐쇄된 느낌을 주지만 완충공간을 지나 진입토록 하였다. 출입자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례 3. 전용일가옥

이 가옥은 홍성군 갈산면 소재지에서 서측으로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갈산중학교와는 가깝게 인접해 있다.



사진 3. 전용일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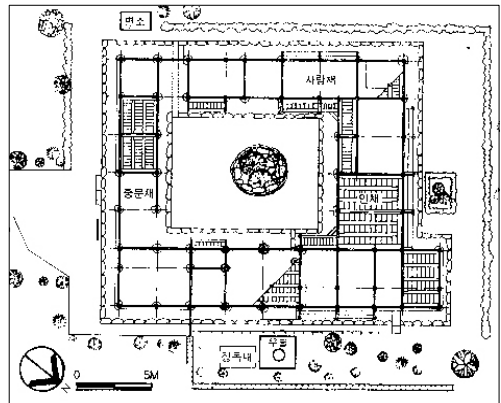


사진 3. 전용일가옥 배치평면도

(도면 : 95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

조선 숙종조때 건립된 이 가옥은 원래 안동 김씨 집안의 가옥이었으나 후손대에서 전씨의 소유가 되었으며 충남 민속자료 11호로 지정된 이 가옥은 문간채나 부속채 없이 ‘口’자집 평면에 안채, 사랑채, 곳간 등이 연결되어 있다.

정면의 중문을 지나면 곧바로 안마당으로 진입한다. 안마당의 크기는 좌우쪽에 비해 전후의 깊이가 깊은 장방형이다. 마당 가운데 둥근 화단을 두었다.

안채는 2칸통의 안대청을 가운데 두고 대청 서측에 안방을, 동측에 건너방을 두었다. 건너방 북쪽 끝에 작은 마루방을 덧붙여 마치 경상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날개집처럼 밖으로 1칸이 빠져나갔다.

안방의 서측 모서리에는 상부에 다락을 둔 부엌이 있으며, 건너방 남측 익랑에도 2칸 크기의 부엌을 두었다. 이 부엌 상부도 다락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방 전면은 뒷마루를 설치하여 안대청과 연결시켰으며, 서측 익랑에는 방과 창고를 두어 큰방은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간채에는 마루를 깔 곳간 2칸과 동편 모서리에 큰 창고를 두고 있다. 문간채와 서측 익랑 사이에는 뒤뜰로 나가는 작은 협문을 두었다.

크게 중부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충남지방의 경우 대개 사랑채와 안채가 별개의 건물로 ‘口’자의 배치를 이루는데 이 가옥은 평면의 구조가 안채와 부속채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따로 부속채를 두지 않은 口자집을 이루고 있다.

가옥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는 평지여서 안채와 사랑채의 단차가 없다. 이러한 대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안채와 사랑채를 완벽하게 붙여 만든 ‘口’자집이다. 다만, 안마당은 경상도의 그것에 비해 크게 만들었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부여 민칠식 가옥, 예산 김정희 가옥, 아산 성준경 가옥, 홍성 엄찬 가옥 등 불과 몇 개의 사례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배치형태는 영남지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만든 안마당을 보면 호서지방의 특징도 함께 나타나는 것은 건립 당시의 소유주가 안동 김씨인 것으로 보아 지역적인 영향이 이 가옥에 내포된 듯 하다.

2) 갈산면 운곡리

운곡리는 상촌리에서 해미방향으로 29번 도로를 따라 10여분의 거리에 운곡교를 지나면 봉두골이라 불리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봉두골

은 마을 앞으로 운곡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상촌리 앞에서 갈산천과 합수된다.

산세는 마을의 동남쪽에 위치한 鵝峰山자락이 마을의 북측에까지 이르고 서쪽으로 三佛山의 자락이 마을을 막아 봉두골을 형성하고 있다. 이 봉두골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사례 1. : 성명미상가옥



사진 4. 성명미상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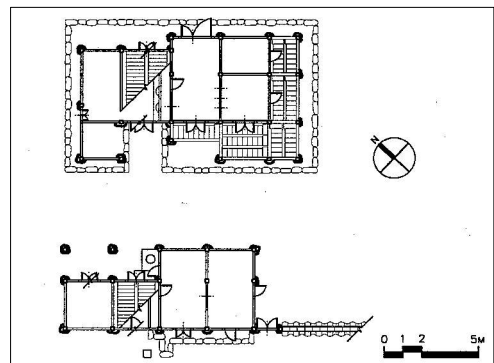


그림 4. 성명미상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二’자형 배치를 이룬다. 안채는 전면과 우측면에 퇴칸이 있고 심주를 둔 5량구조로서 평면상 반겹집형태와 유사하다.

좌측으로부터 부엌, 큰방이 있고 작은방이 전후로 있으며 우측 뒷마루로 부엌의 출입문 좌측으로 빨감 등을 적재할 수 있는 헛청이 있고 부엌의 상부에는 큰방에서 통하는 우물마루의 다

락이 있다. 큰방과 작은방 앞에 툇마루가 있는데 전면의 툇마루가 우측면의 툇마루보다 200mm 높은 차이를 보인다. 큰방과 작은방은 사잇장지문으로 구별된다.

큰방 천정의 상량문을 보면 「大正六年丁巳閏二月八日卯時立植上樑運主辛巳生成造運」 이어서 1917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단은 막돌이열쌓기이고 덩벙주초에 방주이다.

창호는 전면과 후면이 세살 2분합문이고, 우측의 전면쪽이 정자살문이고 후면쪽은 세살문이다. 부엌은 전면, 후면 모두 널문이고 다락은 세살 2분합창이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집으로 반오량구조이다. 평면의 구성은 좌측으로부터 방 2칸, 부엌, 광으로 되어 있다.

광과 부엌의 앞에는 전퇴를 두었다. 광의 하부 벽체는 나무판 벽으로 되어 있고, 부엌의 상부는 우물마루의 다락이 있으며 아래 퇴칸에 아궁이가 있다.

창호는 광부분은 널을 위에서 아래로 끼워 넣는 문이며, 방의 창호는 세살외여단이이고 방과 방사이에는 미서기문이 있다.



사진 5. 박차금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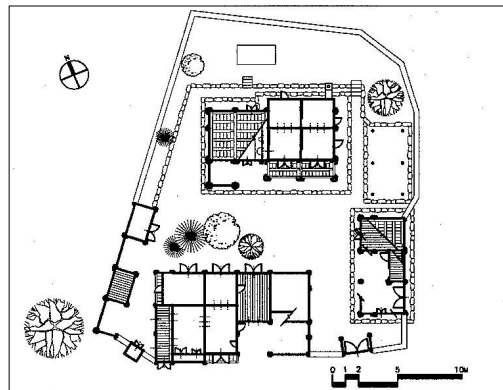


그림 5. 박차금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사례 2. 박차금가옥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곳간, 창고로 구성되어 튼'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건립년대는 이웃에 사는 김환근씨의 고증에 의하면 안채는 1890년경에 건립되었고 사랑채도 안채와 함께 지어졌다가 40여년 전에 다시 건립하여 초기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지붕은 모두가 초가지붕이었으나 1970년경 안채와 사랑채는 시멘트기와로 곳간과 행랑채, 대문은 함석 슬레이트로 개량되었다.

안채는 5량의 전후퇴집으로 좌로부터, 부엌, 안방, 옷방 등을 차례로 두고 있다. 전면의 방앞에 높이 610mm의 툇마루가 있고 후면에는 반칸퇴를 증축하여 방을 넓혔으며 각방에 사잇장지를 넣은 두칸방으로 하였다.

창호는 정면이 쌍여단이에 미단이문이 있는 겹문이고 후면은 여단이문이다. 부엌 상부에 우물마루의 다락이 한칸 있고 좌측칸 앞에는 땀감을 적재하는 헛청이 있다. 창호는 전후 모두 널문이고 상부는 외미단이창이다. 기단은 높이 300mm이고 막돌 위에 장대석일열쌓기를 하였다. 주초는 덩벙주초이고 140×140mm의 방주이다.

곳간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조로 1고주 5량구조이다. 좌측 1칸은 광이고 2칸은 봉당이다. 광은 높이 540mm의 고상식 널마루이고 상부 다락은 우물마루이다.

광의 다락으로 통하는 문은 봉당내부에 널마루가 있고 그 위에 사다리코 출입을 한다. 정면의 창호는 다락이 세살쌍창이고 광은 널문이다. 주초는 덩벙주초에 120×120mm의 방주이다.

창고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삼랑구조로 좌측으로부터 봉당, 광, 봉당,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광은 곳간채와 마찬가지로 고상식이고 바닥은 널마루로 창호는 널을 위에서 아래로 여러 개를 넣어서 끼우는 문이다. 창고는 널문으로 외여닫이문이다. 기단은 높이 100mm의 막돌일열 쌓기이고 덩빙주초에 120×120mm의 방주이다. 이외에 부속시설로 화장실과 땀감 등을 쌓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사례 3. 이축엽가옥



사진 6. 이축엽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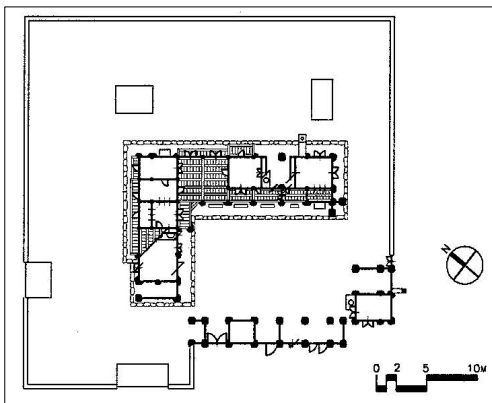


그림 6. 이축엽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안채가 중부형 가옥의 전형적인 평면형태를 보여주는 이 가옥은 관리자의 고증에 의하면 1800년대 후반에 건축되었다한다.

배치는 ‘ㄱ’자형의 안채와, ‘一’자형의 행랑채, 협문채로 구성되어 있다. 행랑채에 ‘檀紀四貳八參年參月拾五日申時立柱上樑’으로 보아 행랑채는 1950년에 건축되었으며, 초가지붕이었던 것이 1970년에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하였다.

안채의 평면은 부엌을 축으로 안방,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넌방의 앞으로 2칸통의 대청마루와 방,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평면의 구성은 대청마루를 주축으로 하는 구성에서 방과 방사이에 아궁이 함실을 갖춘 봉당이 있다는 것이다.

구조는 안채가 퇴칸이 있는 1고주 5랑이며, 높이 400mm의 기단에 덩빙주초로 기둥은 220×220mm의 방주이다.

2.2 보령시

1) 청라면 장현리

조선시대 말기에는 보령군의 지역으로서 북쪽에는 烏棲山, 남쪽으로는 白月山, 서쪽에는 雲住山이 사방으로 둘러 있어서 盆地가 되어 춥과 덩덩이가 많이 있으므로 靑羅面이라 하였으며, 靑羅를 三多鄉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班多, 石多, 言多를 지적한 표현이다.

장현리는 분지로 형성된 청라면 중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마을 앞으로 넓게 트인 전답을 두고 있으며, 마을 북측의 실개천이 마을을 휘감아 돌고 있다. 마을의 위치는 청양군 화성면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례 1. 성명미상가옥(신경섭가옥 입구)

주위의 고증에 의하면 19세기초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가옥은 마을의 입구 신경섭가옥의 맞은편에 위치하면서 뒤로는 야산을 배경으로, 전면에는 논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 가옥은 겹집형의 안채와 곳간채가 ‘二’자형 배치를 이루는 가옥으로 안채는 전·후 퇴칸이 있는 2고주 5랑 구조의 반겹집이며 지붕은 초가를 개량한 슬레이트 모임지붕이다.



사진 7. 성명미상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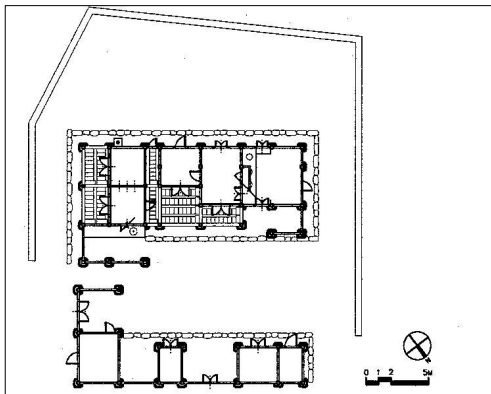


그림 7. 성명미상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안채의 평면구성은 좌로부터 퇴칸을 두고 상·하로 배열되어 사잇장지로 구분된 작은방이 있고, 그 옆으로 전면에는 마루를 두고 후면 쪽으로는 방을 두었는데 그 사이를 다시 마루로 구분한 것이 특이한 평면구성을 보이며, 이어서 방과 부엌이 있다.

평면의 구성은 다소 불규칙해 보이면서도 기둥의 배열은 일정한 배열을 보이고 있는데, 후면 퇴칸의 기둥은 정연한 배치를 보이고 있고, 전면에서는 마루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을 두지 않아 연속성이 없다.

작은방의 전면에 벽을 둘러 아궁이를 두었고, 부엌 앞에 헛청을 두었으며 큰방에서 부엌 쪽으로 벽장을 달아 내었다. 창호는 모두 세살문이고 부엌은 널문이다. 기단은 높이 700mm의 막돌

허튼층쌓기이고, 덩빙주초에 180×180mm의 방주이다.

곳간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의 삼량구조로 광과 헛청, 외양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채 쪽으로 1칸을 만들어 대문을 두었다.

사례 2. 신경섭가옥



사진 8. 신경섭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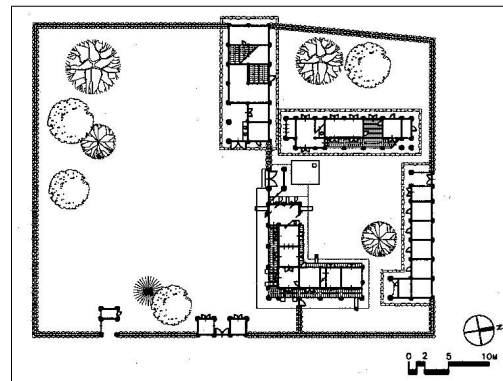


그림 8. 신경섭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문화재자료 29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가옥은 넓은 평야에 위치하면서 개울가 길옆에 자리잡은 이 가옥은 술도가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넓은 대지에 텃밭과 마당으로 둘러싸인 북편 중심부에 ‘一’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 그리고 문간채가 튼‘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 양조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창고와 외양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채, 그리고

사랑채 전면으로 넓은 마당이 여유로운 배치를 이룬다.

사랑채와 안채가 안마당을 만들고 안채 뒤로 뒤안이 있다. 외부에서 넓은 마당을 통하여 사랑채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3칸의 대문을 별도로 두었고, 안채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대문이 북측에 별도로 있다.

사랑채의 정면이 안채를 향하지 않는 것은 사랑채의 정면성을 남쪽에 두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채는 1고주 5량외 앞 퇴를 둔 6칸 규모의 ‘ㄱ’자형이다. 안방과 건넌방이 각 2칸, 1칸반으로 구획된 데 비해 대청은 단칸마루이고 건넌방 앞 툇마루 부분은 높은 마루를 설치해 아래에 아궁이 함실을 둔 것은 이 지방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사랑채는 ‘ㄱ’자형으로 꺾어지는 회침부분에 사분합문을 설치한 사랑 대청이 위치하고 거기서 왼쪽으로 두칸 사랑방과 하부에 아궁이 함실을 둔 누마루 1칸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대청에서 북쪽으로 꺾인 곳에 방 세칸이 나란히 배열되고, 전체 사랑채 방앞으로는 반칸의 툇마루가 연결되고 안마당 쪽엔 쪽마루가 길게 이어졌다.

누마루칸 외벽면을 육중한 화방벽을 친 것과 세벌대 정도의 높은 죽담, 큼직한 덩병주초, 큰 방주와 팔작지붕 등이 사랑채의 위풍을 더하고 있다.

안마당 북편을 막아선 대문채는 외부에 면하여 동쪽에서 1칸의 헛청을 꺾어 배치하고 여기에 1칸의 방과 광들을 안채 쪽으로 배치하였다. 안채와 면한 1칸에는 대문간을 두어 북편 마을 길에서 안채로 직접 출입하게 하였다.

사랑채 상량문 “崇禎 紀元後四癸卯 三月二十一日未時上樑”을 보아 1843년에 건립됐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가옥은 여러 곳이 개조되어 본래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남포면 봉덕리

봉덕리는 보령시에서 서천방향로 10여분거리

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은 이창주가옥이 위치한 대덕굴과 북측 봉산티 너머로 이현구가옥이 위치한 고르머리마을로 불리고 있다. 고르머리마을은 일명 ‘鑽里’라고도하는데 이는 마을의 산세가 고리를 닮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뒤로는 봉산티라 불리는 야산을 배경으로 전면으로는 넓은 들판인 배양들이 펼쳐져 있으며 장항선이 지나고 있다. 배양들 너머 멀리로 용마산(성주산)을 바라보고 배치되어 있다.

사례 1. 이창주 가옥



사진 9. 이창주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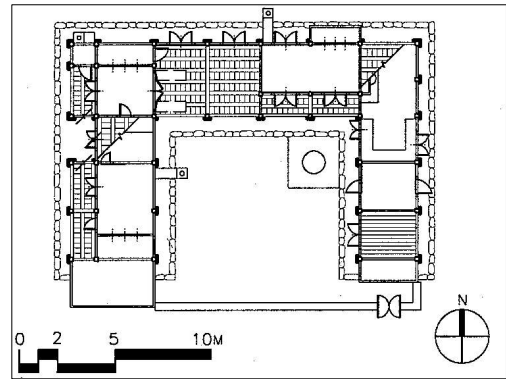


그림 9. 이창주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이 가옥은 후면 쪽으로는 야산이 있고 전면에는 평야가 펼쳐진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배치는 ‘ㄱ’자형으로 전퇴가 있는 1고주 5량구조이다.

평면의 구성은 대문채가 있는 남쪽으로부터 창고와 축사,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건물, 사잇장지를 넣은 2칸의 뿔마루가 있는 방, 대문, 고방과 뿔마루가 있는 방, 다시 동측으로 2칸통의 대청마루, 퇴칸과 반침이 있는 2칸통의 방, 상부가 우물마루로 다락이 있는 부엌, 다시 남측으로 광, 널마루가 깔린 광, 시멘트 건물로 만든 출입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측과 서측의 시멘트건물을 돌담이 이어주고 있다.

몸채와 부속채가 ‘ㄷ’자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가옥은 호주의 고층에 의하면 1890년대 경에 건립되었다 한다.

기단은 높이 300mm의 막돌일열쌓기이고, 주초는 덩벙주초에 기둥은 몸채와 동서 부속채 모두 200×200mm의 방주이다.

창호는 몸채의 대청마루가 있는 4짝미서기문으로 추후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큰방의 창호는 세살쌍여닫이에 ‘卍’자미닫이문으로 곁문이다.

이 가옥은 대문이 서측에 있으며, 대문 좌우로 뿔마루가 있는 방이 있다.

사례 2. 성명미상가옥

이 가옥은 이창주가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후퇴칸이 있는 반5량구조의 ‘一’자형 홑집으로 남향집이다. 건립년대는 100여년 전인 1890년 후반으로 추정된다.

평면의 구성은 서측으로부터 부엌, 방, 방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2칸의 방앞에는 뿔마루가 있고 동측에 굴뚝이 있다.

부엌은 서측으로 900mm를 증축하여 블록을 쌓아 찬방으로 사용하였고, 중앙칸의 방에는 고방을 두었다. 창호는 부엌이 전면은 미닫이 널문이고 후면은 널문으로 외여닫이문이다.

2칸 방은 전면이 세살쌍여닫이이고 후면은 세살외여닫이문이다. 동측방은 2짝미서기창이 있다.

기단은 높이 300mm의 막돌일열쌓기이고, 주초는 덩벙주초에 185mm×185mm의 방주이다.

담장은 돌담으로 현재는 서측면에서 후면까지만 남아 있다.



사진 10. 성명미상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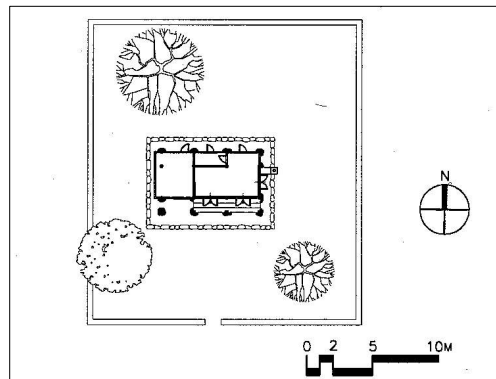


그림 10. 성명미상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사례 3. 이현구가옥

문화재자료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가옥의 건립년대는 확실치는 않지만 거주자의 고층에 의하면 1800년대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6칸 측면2칸의 ‘一’자형 주옥에 뒷편 右端間으로 정면 5칸 측면 1칸을 달아내어 ‘ㄱ’자형을 이루고 있는 사랑채로서 원래는 안채를 감싸듯이 지었으나, 50여년 전인 1940년대 후반에 안채는 헐어 지금은 일부의 기단유적과 주초만 남아 있다.

현재는 사랑채와 대문채만이 남아 있으며, 사랑채 앞 안채터 뒤로 높이 1,600mm의 석축이 있고 석축위로 경사진 언덕이 있다.

사랑채는 왼쪽부터 1칸의 고방과 2칸씩의 중문과 사랑방, 그리고 1칸의 사랑대청을 들었다.

중문은 밖에서 한 번 꺾어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안채의 생활상을 바깥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진 11. 이현구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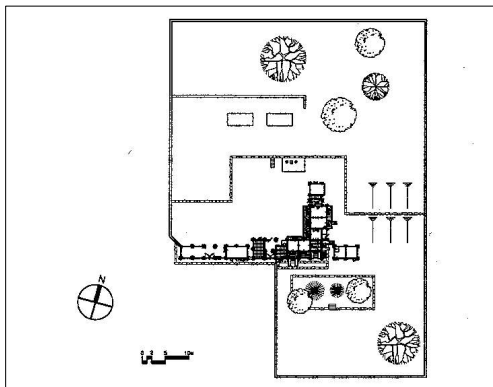


그림 11. 이현구가옥 배치평면도(실측조사)

높이 250mm의 1벌대 기단 위에 덩벙초석을 놓고 230×230mm의 방주를 세운 1고주 5랑구조로 특히 이 건물 앞에 간결한 형태의 독립된 건물로 차양칸을 달아낸 것은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특색이다.

이러한 차양은 창덕궁의 연경당과 강릉 선교장, 해남 윤선도가옥에서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시설로서 이 가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지붕은 부엌 쪽에서는 모임지붕이고 회침 부분은 합각이고, 중문부분에서는 맞배로 처리하였다.

대문채는 사랑채와 나란히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서측에서 부터 2칸의 판벽으로 된 헛청과 2칸의 대문, 그리고 2칸의 문간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50여년전인 1940년대 후반에 기와에서 초가로 지붕을 개량하였다가 1995년에 현재의 합석슬레이트로 개량하였다.

기단은 내부에서는 구별이 없고 서측의 경사로 인하여 높이 600mm의 막돌허튼층쌓기에 주초는 덩벙주초이고, 기둥은 190×190mm의 방주이다.

3. 조사대상지역 주거의 공간구조

3.1 외부공간

외부 공간의 구성요소는 방과 대청, 기타 광들로 구성된 채(棟), 즉 안채, 사랑채, 행랑채들과 담장들이 이루는 공간을 말한다²⁾.

조사대상지역 중에서 반가의 경우 안채와 부속채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ㄱ’자형의 배치를 보이는 곳에서는 안마당이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현구가옥과 김우열가옥의 경우 안채로의 출입을 위해 별도의 대문간을 설치하고, 안채가 직접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대문간에 공간벽을 세워 꺾어서 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안채가 여성의 공간으로서 유교적인 이념과 규범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내부공간

일반적으로 민가의 안채 간 배치에 있어서 기본요소로는 부엌, 방, 마루로 구성되는 3가지의 요소를 들 수 있다.

본 조사대상지역에서 대청의 발달은 경제력이 높은 가정을 제외하고는 방 앞과 측면이나 후면에 퇴마루를 설치하고 난방을 위한 공간인 아궁이 함실을 퇴마루 아래에 두기도 한다.

2)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p.229~231, 1994

이러한 뒷마루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청마루의 경우 대개 전면에는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후면에 세 살문 또는 널문의 창호를 두고 있다.

또한 뒷마루에서 부엌과 쪽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2칸 이상의 규모에서는 대들보 위에 가로로 장대를 보내어 제사용품 및 기타의 수장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3.3 배치

가옥의 배치는 ‘一’자형, ‘二’자형, ‘ㄱ’자형, ‘ㄷ’자형, ‘ㄴ’자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一’자형은 부속시설 없이 안채만으로 구성된 것이며, ‘二’자형은 안채와 부속채가 평행하게 배치된 유형이다.

‘ㄱ’자형의 배치는 안채가 독립적으로 부속채와 연결된 유형과 ‘一’자형의 안채와 부속채가 직각으로 배치되는 유형이다.

‘ㄷ’자형의 배치유형은 안채에 부속시설들이 연결된 유형으로 ‘一’자형의 안채에 양측의 부엌과 방의 전면으로 대문채, 부속시설들이 연결되는 유형과 ‘ㄱ’자형의 안채에 부속시설이 추가되어 ‘ㄷ’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ㄴ’자형의 배치는 안채의 유형에 따라 부속시설들이 배치되어 튼‘ㄴ’자를 이루는 유형과 안채와 부속시설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폐쇄적인 안마당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후자는 주로 반가에서 나타나며 경상도 지방의 날개집과는 다른 배치유형을 보이고 있다.

4. 건축재료와 형태

건축자의 경제력, 그 지방의 형태, 기후, 재료 운반의 편리 등이 주로 재료의 종류를 결정짓는다. 건축재료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교적 건물, 궁궐, 대저택과 같은 기념적인 건물만이 먼 곳에서 운반해 온 재료로 건설되었고, 보통은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가옥을 짓는 경향이 있었다.

건축재료와 지역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통의 발달에 따라 건축재료의 운반이 용이해져서 지역의 특수성이 사라지고 보편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³⁾.

그러므로 문화수준이 낮거나 생활 중심권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주변에서 건축재료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건축재료의 지역성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민가의 건축재료와 형태 면에서의 지역차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본 조사대상가옥의 경우에는 건축재료와 형태 면에서 일부는 아직도 전통적 민가의 양상을 띠면서도 일부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4.1 지붕

재래의 중요 재료로는 벗짚, 갈대, 조, 밀짚, 판자, 木皮, 기와 등이었다. 벗짚지붕은 화재의 위험은 있으나, 재료를 얻기 쉬운 농촌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통의 발달에 따라 지붕의 재료에도 지역성이 사라지고 슬레이트, 기와 지붕이 보편화되었으며 조사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붕의 중요한 재료는 기와(39.6%), 슬레이트(31.6%), 슬라브(20.8%)의 순이며, 함석, 짚, 갈대, 기타의 재료의 비중은 극히 낮다.

또한 일제시대 초기의 조사(小田内通敏)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군내에서는 瓦家와 초가가 1 : 47 (541 : 25,275)의 비율이고, 강원도 강릉군내에서는 와가 3.4%(471), 함석집 2.5%(347), 초가 89.1%(12,251), 판자집 1.8%(252), 목피로 이은집 3.1%(422)에 비해 큰 변화이다⁴⁾.

본 조사대상지역에서도 초가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가옥은 전무하며, 함석 또는 슬레이트,

3)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p.261, 1988

4) 홍경희, 앞 책, p.269~270

기와의 개량된 가옥이 대부분이고, 민가의 원형을 비교적 유지하고있는 가옥 역시 함석지붕이 대부분이다. 기와의 경우에는 그나마 일부의 가옥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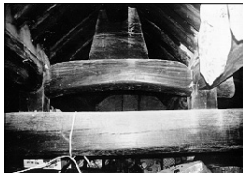
이처럼 조사대상가옥이 함석지붕으로 개량된 것은 초가지붕보다 비교적 바람에 강하고 지붕을 개량하는데 따른 노동력이나, 경제력 등에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주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4.2 벽체

조선시대의 주택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심벽구조로 한다. 다만, 防火牆으로 할 때만 기둥의 일부가 벽체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며, 초가에서는 흙과 돌로 벽체를 쌓을 때가 많으며 때로는 널판으로 판장벽을 쌓기도 하였다⁵⁾.

본 조사대상가옥의 경우도 보령 남포의 이현구가옥 일부에 방화장이 보일뿐 기타의 민가에서는 모두 심벽구조를 보이고 있다.

4.3 구조



노성모가옥



전용일가옥



이축엽가옥



신경섭가옥

그림 13. 조사대상 가옥의 대표적 가구구조

중부형의 민가에서는 가구상의 특징으로써 平4梁 구조가 채택되고 있다. 平4梁구조는 외견상의 지붕형태와는 관계없이 서까래의 물매가 대단히 완만하고 4梁 구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⁶⁾.

중부형 민가의 분포권역에 포함되는 본 지역의 조사대상 민가의 구조는 ‘一’자형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주로 平4梁의 구조에 퇴칸을 두었으며, ‘ㄱ’자형의 평면에서는 대체적으로 5梁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5량의 가구구조 중 보령 청라 장현리와 홍성 갈산 운곡리의 가옥에서 심주를 둔 가구구조도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에서 이 지역 주거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 목적이었다. 그러나 주거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 거주민들의 의식구조 등의 변화로 인하여 현존하는 전통가옥을 밝히는 자체만으로도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온 중부형 민가의 특성이 조사대상가옥 모두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엌 또는 방을 회침으로 하여 ‘ㄱ’자를 형성한다. 여기에 부속채들이 추가되어 튼‘口’자를 형성하고 있으며, ‘一’자형가옥에서 겹집의 형태로 발전되기 전 단계인 반겹집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구조는 1고주5량가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一’자형가옥에서는 평4량가구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중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의 살림집 등의 겹집형 가옥에서는 심주를 둔 5량가구도 나타나고 있다.

5) 주남철, 앞 책 p.186~189

6) 조성기, 한국중부지방민가의 평4량구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 11호, p.39, 1993

참고문헌

1. 이성호, 충청남도 서부지역에 나타난 주거형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84
2. 조성기, 한국 민가연구 서설. 대한건축학회지 24권 93호, 1980
3. 조성기, 한국 중부지방 민가의 평4량구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11호, 1993
4. 김광민, 김진균. 한국전통건축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대회논문집, 제8권 제1호, 1988
5. 박명덕.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형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 10호, 1993
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 제16책(주생활편), 1985
7.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4
8.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74
9. 홍경희. 촌락지리학, 범문사, 1988
10. 岩槻善之, 朝鮮民家の家構に就いて, 朝鮮と建築 第三輯 第二號, 1924
11. 문화재관리국, '95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